

기술매체의 변화와 새로운 인간학*

-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매체이론을 중심으로

도기숙 (광운대)

I. 문제제기

프리드리히 키틀러 Friedrich Kittler는 기술매체와 인간의 관계를 매우 극단적 시각에서 규명하고 있는 독문학 출신의 매체이론가이다. 그는 기술매체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매체 자체가 사물의 기준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문학 Humanwissenschaft과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을 문화학으로서의 매체학 Medienwissenschaft als Kulturwissenschaft으로 전환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¹ 키틀러는 문화학으로서의 매체학이 기존의 전통적 인문학과 정신과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매체로 규정하면서 문예학 Literaturwissenschaft 조차도 매체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서술하고자 한다. 그의 저서 『기록시스템들 Aufschriebesysteme』(1985)은 괴테 및 낭만주의가 속해 있는 1800년대의 독일문예사를 매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하며 출판 이후 인문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독문학 출신으로서 키틀러는 말하자면 1980년대에 ‘매체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문화학, 인문학, 정신과학의 경계는 무엇이며 이 학문들의 영역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보다 섬세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문화학은 매체학으로 (Medienwissenschaft als Kulturwissenschaft) 한정하고 있으며 인문학과 정신과학은 정신, 휴머니즘, 주체적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들로 규정한다. 인문학 및 정신과학을 문화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매체문화학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유봉근, 문화학전 전환: 문화학으로서의 매체학. 카프카 연구, 제 12집, 2004, S. 181-199.

키틀러에 대한 평가는 양극화 되고 있다. 인문학 및 정신과학을 문화학인 매체학의 영역으로 새롭게 전환시킨 주역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문화학을 소위 엔터테인먼트로 전락시키며 말장난에 빠진 학자로 냉혹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키틀러는 1990대 이후 인문학과 문화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학문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²

키틀러는 그의 저서 『기록시스템들 Aufschreibesysteme』(1985), 『축음기, 영화, 타자기 Grammophon, Film, Typewriter』(1986) 등에서 아날로그 매체의 등장과 더불어 이성중심의 근대적 인간관이 점차 해체되고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촉진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록시스템 1800>이라고 부르는 시기는 인쇄서적 및 문자가 주도하던 시기로서 문자를 독점한 이성적 주체인 인간은 절대적 존재였다. 하지만 사진, 축음기, 영화, 타자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매체가 주도하는 <기록시스템 1900>은 활자 매체의 독점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초래한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의 저장에 가능해진 기술매체의 발전이 소위 ‘구텐베르크 은하계’에 종말을 고하고 인간의 미학적 체험과 사고의 방식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기술매체의 발전이 인간의 사유방식과 존재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물론 키틀러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일찍이 독일 매체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벤야민은 근대 철학에서 이미 출발부터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주체의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매체와 지각양식의 관계를 새롭게 통찰하고자 했다. 벤야민을 통해 기술매체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존재론 및 인식론이라는 인문학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기에 이른다. 귄터 안더스는 그의 저작 『골동품이 된 인간 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1980)³에서 의식의 주체, 인격의 주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근대의 인간상이 ‘골동품’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했고 이를 이어 빌렘 플루서 또한 그의 저작 『피상성 예찬 혹은 추상게임 Lob der Oberflächlichkeit oder Das Abstraktionsspiel』(1993)⁴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

2 Vgl. R. Zoons: Kittler, Friedrich. In: A. Nünning (Hg.): Metzler Lexikon Literatur- und Kulturtheorie, Stuttgart 1998, S. 259. Friedrich Vollhardt: Kittlers Leere. Kulturwissenschaft als Entertainment. In: Merkur 628 (2001), S. 711.

3 Günter Anders: 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 Band 1: Über die Seele im Zeitalter der zweiten industriellen Revolution, München 1987.

4 다음으로 번역되었다. 빌렘 플루서: 『피상성 예찬. 매체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

통구조 안에 있는 인간을 이제 주체 Subjekt 대신에 기획 Projekt 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아가 노르베르트 볼츠도 그의 저서 『컨트롤된 카오스 Das kontrollierte Chaos』(1994)⁵에서 비휴머니즘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의 본질이라고 규정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모두는 독일의 매체미학을 대표하는 동시에 기술매체 시대에서 새로운 인간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키틀러는 인간과 기술매체에 대한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절대적 권좌를 부정했던 독일 매체미학의 흐름에서도 매체유물론을 통해 반휴머니즘 사상을 전적으로 옹호한다. 매체가 단순히 의사전달의 표현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을 ‘선택’적으로 규정한다는 유물론적 관점을 통해 독일의 정신과학을 지배해 온 휴머니즘적 인간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전문용어와 후기구조주의 이론적 용어를 섞은 그의 분석들은 한마디로 푸코의 담론분석을 기술매체사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키틀러는 ‘인간의 사라짐’을 예고하는 푸코의 분석을 매체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인간, 정신, 주체 등 인문학의 핵심개념들을 완전 해체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의식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의미’를 추구하는 전통적 해석학을 거부하고 매체유물론의 관점에서 기술매체와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키틀러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이보그와 같은 21세기 새로운 인간존재의 방식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키틀러가 어떻게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키틀러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인터넷 매체라는 혁명적인 환경에서 매체를 통한 인간의 사유방식과 존재방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할지, 매체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담론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복스 2004, 301쪽.

5 다음으로 번역되었다. 노르베르트 볼츠 『컨트롤된 카오스: 휴머니즘에서 뉴미디어의 세계로』, 문학과 지성사 2000, 354쪽.

II. 매체유물론

21. 매체의 선행성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의 주요테제는 매체의 물질성과 선행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키틀러는 매체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매체선행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물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 무엇이 현실인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은 곧 매체이다.⁶

매체선행성은 기술과 분리된 인간고유의 존재방식을 배제하고 오로지 매체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키틀러 매체이론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학자 빈클러 Winkler는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을 두고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인간이 매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인간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형이상학에 집중했던 인문학이 그 인식을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⁷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키틀러의 말은 기술적 조건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 인간의 의식과 사유방식을 형성하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기후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예를 들어 키틀러는 무더운 남부지방과 추운 북부지방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기술적 조건이 다른 사회의 문화와 의식구조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후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듯이 기술이 그 사회 구성원의 사회제도와 사유의 방식을 결

6 “Medien bestimmen unsere Lage (...) Medien definieren, was wirklich ist.” Friedrich Kittler: Grammophon, Film, Typewriter. Berlin 1986, S. 3. 이하 GFT로 명명함.

7 Hartmut Winkler: Die prekäre Rolle der Technik: Technikzentrierte versus >anthropologische Mediengeschichtsschreibung. In: C. Pias (Hg.): Medien: Dreizehn Vorträge zur Medienkultur, Weimar 1999, S. 224. 물론 Winkler는 기술중심론과 인간중심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키틀러의 이론에도 일정 정도 거리를 갖고 서술하지만 키틀러의 문제의식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한다고 보는 것이다.⁸

키틀러를 반대하는 비판자들은 기후와 달리 기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을 분명히 한다. 기술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지만 기후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키틀러는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주체라는 의식에 강력하게 반박한다. 마이크로 생산기술의 발전 이후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구적 개념을 떠나 스스로 증식하고 있으며 인간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하나의 기술력이 또 하나의 기술력을 창출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인간의 종속성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22 소통의 물질성(Materialitäten der Kommunikation)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은 또한 소통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키틀러는 물질만이 실체이며 정신을 물질의 반영으로 보는 맑스의 유물론을 매체에 대입시켜 매체의 물질성을 역사의 결정적인 동력으로 보고 있다.

매체가 역사의 결정적인 동력이며 인간의 사유방식과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는 근거를 키틀러는 그의 『기록시스템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신’을 상징하는 근대의 인문학이 이미 문자 및 ‘기술’을 상징하는 인쇄술 발전의 산물이었다고 전제함으로써 소통의 물질성에 근거한 문명사를 서술하고 있다. <기록시스템>이란 한 문화가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저장하며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 및 제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¹⁰ 영혼과 정신의 산물로 간주된 문학이나 인문학을 인쇄술이라는 기술과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제도적 시스템의 산물로 새롭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기록시스템> 이다. 여기서 키틀러는 인문학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해석학을 정보 Information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한다.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재구성하여 시대적 정신을 읽고자 했던 해석학 대신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여 유통하게 하는지 소통매체의 물질성에 주목한다.

⁸ Vgl. Geoffrey Winthrop-Young: Friedrich Kittler zur Einführung. Hamburg 2005, S. 78.

⁹ Vgl. Ebd.

¹⁰ Friedrich Kittler: Aufschreibesysteme 1800 • 1900. München 1985, S. 501.

예를 들어 1800년대의 <기록시스템>은 인쇄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문화 중심이었다. 문자문화란 “알파벳에 의해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된 시각중심의 문화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¹¹을 뜻한다. 1800년대의 근대사회에서는 인쇄매체가 정보의 저장과 유통을 주도하면서 문학과 해석학이 지배하는 문자중심주의 시대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1900년대 <기록시스템>에서는 축음기, 전화기, 타자기 등의 새로운 기술매체가 발명되면서 문자를 넘어서 소리와 영상이라는 새로운 물질성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키틀러에 따르면 축음기라는 매체는 단순한 과학적 발명물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담고 있다. 축음기의 발명 이후 간격과 비례중심의 근대음악은 초당 진동수를 나타내는 주파수(배음)의 음렬에 의해 대체된다. 다시 말해, 초당 진동으로 울리는 모든 소리들이 음악의 대상이 되면서 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 축음기가 새기는 진동의 속도는 1초당 20에서 16,000을 기록하며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지만 어떤 영혼의 형이상학적 과정이 아니라 분명 실재하는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¹² 보이지 않았다고 그 물질적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축음기의 진동은 소리가 물질로 소급되는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축음기는 소리를 파장으로 기록함으로써 소리가 진동의 결과라는 단순한 물리적 사실을 통해 소리를 물질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그리고 소리의 진동을 재생하는 축음기의 기술적 과정은 음성이 영혼의 울림이라는 근대음악의 사고를 해체시킨다. 이제 축음기 이후로 음악은 비례와 정수비로 표현되는 로고스의 음을 넘어 진동을 야기하는 모든 소리(소음)를 음악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소음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진동의 음역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소음의 영역을 음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축음기는 현대음악의 탄생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¹³

키틀러는 음이 이상적인 비례관계가 아닌 주파수일 뿐이라는 축음기의 원리를 생리학Physiologie의 뇌의 체계와 비교한다. 축음기에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할 경우, 소리의 진동이 축음기의 금속판에 새겨지는데 이 진동으로 새겨진 선은 목소

11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The New York American Library, p.88. Zit. nach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서울 2008, 33쪽.

12 Friedrich Kittler, *GFT*(1986), S. 42. “Reales rückt anstelle des Symbolischen.”

13 박영욱, 172쪽.

리의 크기, 높이, 굵기에 따라 불균등한 주름 혹은 홈을 형성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새겨진 주름을 다시 진동으로 바꾸면 이전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뇌의 기억들은 바로 금속판에 새겨진 정보의 주름선을 다시 재생하는 것으로 Kittler는 보고 있다. 기억이란 축음기의 재생과정과 마찬가지로 뇌에 새겨진 주름선을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⁴ “영혼은 축음기 녹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트일 뿐이다”¹⁵ 라는 주장을 통해 Kittler는 전통적 해석학이나 문학에서에서 사용한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개념과 결별하고 뇌의 활동을 철저하게 물질적 과정으로 소급시키고 있다.

Kittler는 축음기의 진동의 원리를 정신분석학에도 적용한다. 축음기의 속도를 빨리하면 - 이를 TAM(Time Axis Manipulation)라고 하는데 - 옥타브나 멜로디의 음역이 변한다. 여기서 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녹음된 소음도 그 스펙트럼이 변한다. 속도를 빨리하여 음을 올리면 소음도 이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에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음도 들리게 된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이런 소음을 Kittler는 정신분석학의 무의식과 비교한다. 축음기가 음성이 아닌 소음을 기록하듯이 정신과 의사는 평소에는 들리지 않는 환자의 소리인 소음(무의식)을 기록한다.¹⁶ 이 소음은 기계를 통해 드러났지만 분명 미세한 소리의 진동 결과이며 허구가 아니라 실재라고 이야기 한다.¹⁷

Kittler에 따르면 축음기를 통한 소리의 전달은 기존의 문자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한다. 인쇄기술의 문자문화는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저자의 소리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오로지 독자의 상상으로만 채워져야 했다. 하지만 문자와 더불어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시각중심의 문

14 “So wurde etwas das Gedächtnis in Analogie zum Phonographen vorgestellt. Die Hypothese von Erinnerungen als Einschreibungen in Hirnzellen basierte auf der Phonographennadel, die Schwingungen als Linien in die Walze grub.” Daniela Klook/ Angela Spahr: Die Technizität des Textes. Friedrich Kittler. In: Medientheorien. Eine Einführung, München 2000, S. 179. 기억은 축음기와 유사하게 대비되었다. 뇌세포에 새겨진 기억은 바로 축음기 바늘이 판에 새기는 진동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15 “Die Seele ist ein Heft phonographischer Aufnahme.” Friedrich Kittler, GFT(1986), S. 50.

16 Friedrich Kittler, GFT(1986), S. 136. 박영욱, 181쪽 참조

17 “Wenn beim Phonographen die Wiedergabegeschwindigkeit von der Aufnahmegeschwindigkeit abweicht, wandern nicht nur saubere Töne, sondern Geräuschspektren in ihrer Gesamtheit. Manipulierbar wird statt dem Symbolischen das Realen.” Friedrich Kittler, GFT(1986), S. 57.

자문화에서 상상해야 했던 목소리는 축음기를 통해서 실체가 된다.¹⁸

사진, 영화, 레코드판의 출현은 문자텍스트에서 단지 상상에만 의존했던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영상적, 음성학적 현실이 되게 만들었다. 이로써 음성의 물질성(소리:축음기)과 대상의 물리적 정확성(그림:사진기)이 지배하면서 문자만의 독특한 상상력은 해체된다.

문자에서 음성과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적 질서의 새로운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을 변형시키고 인간 의식의 구조마저 변화시킨다. 이때, 정확성을 산출하기 위해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과 휴머니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Kittler는 강조한다. 가령, 사진이 문자보다 정보의 방식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휴머니즘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ittler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가 도구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매체에 따라 소통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본다. 사실 매체의 작용은 그 실제적인 유용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매체는 내용에 의해 결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다.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맥루언의 말처럼 Kittler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소통의 물질성을 소통의 핵심으로 본다. 즉 매체가 다르면 전달 내용도 달라진다. 매체에 따라 우리의 감각의 비율도 달라진다. 우리가 매체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이끌어냈는가에 상관없이 매체의 영향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III. Kittler와 새로운 인간학

3.1. 정보기계로서의 인간

Kittler의 매체유물론은 언급한 바처럼 독일 근대철학의 전통적 의미의 ‘주체’ 개념을 거부한다.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비켜서서 인간

18 “Aber das Wort ist eine Beschwichtigungsformel. Präziser als jene poetische Einbildungskraft, deren Alphabetismus oder Schöpfungstum um 1800 einem bloss reproduktiven Gedächtnis entgegentrat, macht Technik Unerhörtes im Wortsinn möglich.” Friedrich Kittler, GFT (1986), S. 59.

의 주체성을 물질과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된 문화의 산물로 보고자 한다. 키틀러의 인간학은 주체성의 형식들이 시대적으로 생산되며 구성된 주체성은 다시 그 형식들을 구성하고 있는 담론영역 안에서 재구성된다는 푸코의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키틀러는 본질적, 실천적 주체를 상정한 인문학의 전통을 거부하고, 인간을 ‘정보기계 Informationsmaschine’¹⁹라고 부르기에 이른다.

인간을 정보기계로서 정의하는 키틀러의 논의는 19세기 후반 생리학 Physiologie의 발전과 매체의 발전의 상호관계를 추적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는 인간의 생리학 과정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을 물리적·생리학 과정의 총체로 정의한다.²⁰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신경조직이 작용하는 정보의 공간이며 신체외부 및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곳이다. 인간의 뇌는 정신의 영역을 관장하는데, 형이상학적 관념도 뇌의 생리학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뿐이다. 뇌의 기능 또한 절대 우위의 독보적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뇌의 공간에서는 여러 기능이 분리되어 각각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은 뇌의 분화된 기능으로써 각각 작용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르다. 각기 다른 기능 중 설사 어떤 기능이 문제를 일으켜도 한 기능이 다른 기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가령, 말하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쓰기의 기능까지 결손을 가져오지 않는다. 여기서 키틀러의 핵심논의는 뇌의 작용이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추상적 차원이 아닌 정보의 저장과 기능, 실행 등 물질계의 작용이며 각 기관의 관계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각 독립된 기계들을 합쳐서 서로 유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결국 인간 ‘정보기계’의 개념이다.²¹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던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고, 청각장애아동 교사였던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최초의 타자기가 시각장애자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체는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등 뇌의 기계적 결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²²

19 Friedrich Kittler, GFT(1986), S. 281. 인간신체의 각 기관(Organ)을 기계(Maschine)로 명명하는 것도 키틀러의 유물론적 매체이론을 반영한다.

20 “Der Mensch wurde zur Summe test- und messbarer physiologischer Abläufe, erfasst durch Datensammlung.” Daniela Klook u.a., S. 181.

21 Geoffrey Winthrop-Young, S. 94.

22 Ebd. S. 96.

키틀러의 이러한 인간학에 따르면 이제 매체의 발전은 인간의 고매한 이상과 휴머니즘의 실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경체계의 물리적 기능의 결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키틀러는 인간고유의 정신과 영혼을 배제하고 뇌의 활동을 정보처리라는 기능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면서 생리적 신체기능과 매체의 발전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적 입의 기능으로써 전신기가, 인공적 귀의 기능으로써 전화기가 만들어지면서 - 축음기가 발명되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신경체계의 기능들은 기술적으로 보완되었다.²³

키틀러는 맑스가 헤겔을 뒤집듯 기술과 인간의 유기체적 결합을 언급했던 매체학의 인공신체이론 Prothesentheorie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해석한다. 맥루언 등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인공신체이론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기신체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내용으로써 기술이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인간의 신체와 결합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⁴ 예를 들어 Ernst Kapp은 『기술철학 개론』(1871)에서 기술이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방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기술이 인간의 신체구조와 기능을 투사하며 점차 인간이 지닌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망치는 주먹을, 사진기는 눈과 유비되면서 신체 각 기관들의 기능을 모방하여 인간 신체기관의 능력을 확대시키면서 기술은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공신체이론은 20세기 카시어러 Ernst Cassierer에게 이어져 그는 기술매체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이며 인간의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라고 평가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파악하게 하는

23 “Ein Fernschreiber als künstlicher Mund, ein Telephon als künstliches Ohr- dem Phonographen stand nichts mehr im Weg. Funktionen des Zentralnervensystems waren technisch implementiert.” Friedrich Kittler, GFT(1986), S. 47. 에디슨의 축음기는 전화기와 전신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다. 전화수화기에 진동판을 새기는 바늘을 달면서 축음기의 태동이 예고되었는데, 특히 에디슨은 이 바늘의 진동을 귀가 잘 안들리는 문제 때문에 보다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으로 감지하도록 바꾸었다. 축음기는 에디슨이 자신의 귀의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손끝으로 진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가적으로 발명된 것이다.

24 Hartmann Frank: Techniktheorien der Medien. In: Stefan Weber (Hg.): Theorien der Medien, Konstanz 2003, S. 55.

매체는 이제 인간 존재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의족한 신 Prothesengott’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때의 ‘의족한 신’이란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맥루언은 모든 기술이 인간의 신체기관과 신경체계의 확장 자체이며 또한 기술은 권력과 속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²⁵

이렇듯 기존의 인공신체인론이 매체를 통해 인간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Kittler는 매체가 심지어 인간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 기술과 인간의 주종적 관계를 아예 뒤집어 생각한다. 매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Kittler에 따르면 카메라나 영화그래픽은 단지 인간의 눈을 대신하여 현실의 모형을 비춰주거나 인간의 미학적 시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체는 인간의 눈이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상태나 조직을 정보처리해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기술은 인간의 사고나 경험과 연관된 신경조직이 더 발달하도록 지원하기도 하며 심지어 신경조직의 활동범위와 능력을 시뮬레이션해서 제시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기술을 인간신체의 확장으로 본 맥루언과는 달리, Kittler는 오히려 인간을 기술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한다.²⁶

Kittler는 매체를 사용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회로체계와 기술적 배치의 문제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매체의 관념적 측면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²⁷ 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정신)는 하드웨어(물질성)의 효과일 뿐이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탄생은 물질의 비물질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통해 비물질성(정신)이 물질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²⁸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결정적으로 하드웨어의 용량(Speicherplatz)과 계산속도

²⁵ Vgl. Ebd. S. 54.

²⁶ 이러한 관점에서 Kittler의 매체유물론은 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매체학의 논의 가운데에서도 매체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보는 가장 레디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Wenn Medien unseren Denk- und Wahrnehmungspaparat so erfolgreich unterstützen können, dann können sie ihn auch simulieren und vielleicht sogar ersetzen. Der »sogenannte Mensch« (...) ist »machbar geworden.«” Geoffrey Winthrop-Young, S. 96.

²⁷ 유봉근, 214쪽 참조

²⁸ Friedrich Kittler: Hardware, das unbekannte Wesen. In: <http://www.hydra.umn.edu/kittler/hardware.html>, S. 4.

(Rechenzeit)에 달려 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작동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다.²⁹ 하드웨어 A가 하드웨어 B와 똑같이 작용하도록 스스로 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되면서 기술매체는 스스로 증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Kittler에게 인간은 주체적 창조자가 아니라 객관적 구조에 의해 작용하며 기술과 함께 통합되고 구성되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2 매체와의 접속을 통해 구성되는 존재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Kittler의 정의는 ‘접속 *Schaltung* 되어지는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전자기에 접속되어야 하고, 그것도 때면 새로운 규칙과 원리를 익혀서 접속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 디지털 기기와의 관계도 유동적이라서 불과 사용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 앞에 사용자의 경험이 기습적으로 무효화되기도 하며, 디지털전자기의 복잡한 가상현실에 항상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술세계의 통찰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³⁰

Kittler는 하이덴라이히 Heidenreich와의 인터뷰(1993)에서 기술매체 시대의 인간을 기술에 대한 ‘종속 변수 *abhängige Variablen*’³¹로 규정하면서도 이것에 대해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인다. 인간이 자신들 이론의 주체라는 기존의 인식 대신에 인간과 기술이 기술사회에서 동등하게 통합되는 지체가 되었다고 본다면 그리 비판적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³² 그는 결국 인간이 더 이상 자연적,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네츠서버나 프로그램 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

²⁹ Ebd. S. 5.

³⁰ Frank Hartmann: Materialitäten der Kommunikation: Zur medientheoretischen Position Friedrich Kittlers. In: Information Philosophie 2/1997, S. 40f. Frank Hartmann, Techniktheorien der Medien (2003), S. 58.

³¹ Friedrich Kittler: Interview, Stefan Heidenreich, Pit Schultz, 12-22-1993. <http://www.hydra.umn.edu/kittler/interview.html>, S. 10.

³² 조만간 미래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악수를 해도 각자의 옷이나 안경, 시계에 숨겨져 있는 컴퓨터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해 귓속말로 전해줄 수도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악수 한번만으로 당신이 누군지 다 안다.>, 2007년 3월 20일.

야 한다고 본다.³³ 인간은 컴퓨터의 수 백 가지 프로그램과 서로 혼합되며 따라서 매체를 도구로 사용했던 기존의 근대적 주체개념은 해체될 것으로 그는 진단한다.³⁴

이제 키틀러는 실천적 주체를 상정한 인문학적 전통을 거부하고 인간을 ‘정보 기계 Informationsmaschine’³⁵라고 부르면서 인간과 기술프로그램, 프로세서(실행 장치)가 하나로 어우러진 문화의 탄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러한 문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럽의 전통적 윤리학을 오히려 비판하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정의하던 윤리학적 전통을 기억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역설하고 있다.³⁶ 기술매체와 접촉되어 진화하는 인류의 운명은 결국 앞으로의 기술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발전에 달려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유일한 문화적 존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봇의 발전은 분명 인간보다 더 문화적인 존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틀러는 인간 주체의 종말을 얘기하며 기술이 지배하는 고도의 기계문명 사회를 그저 낙관적으로만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그의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두고 기술결정론자에 불과하다는 그에 대한 비판³⁷은 타당한

33 “(...) nicht bloss mehr Menschen, natürlichen Personen und Rechtspersonen führt, wie Institutionen, sondern grosse Netzserver und Programmstrukturen, also eine Welt, in der die Menschen nicht mehr allein kulturelle Wesen sind.” Friedrich Kittler: Die Informationsbombe. Paul Virilio und Friedrich Kittler in Gespräch. Ausgestahlt im Deutsch-Französischen Kulturkanal ARTE November 1995. In: <http://www.hydra.umn.edu/kittler/bomb.html>, S. 2.

34 “(...) werden Menschen und Programme in irgendeiner seltsamen Mixtur einbeziehen.” Ebd. S. 7. 예를 들어 흡소핑은 공간의 한계를 허물었다. E-메일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허물었다.

35 Friedrich Kittler, GFT(1986), S. 281. 인간신체의 각 기관(Organ)을 기계(Maschiene)로 명명하는 것도 키틀러의 유물론적 매체이론을 반영한다.

36 Friedrich Kittler, Hardware, S. 8.

37 Hartmut Winkler: Die Prekäre Rolle der Technik(1999), S. 224 참조. 미래학자 엘빈 토플은 <제3의물결>에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힘은 기술에 있다며, 이른바 기술결정론을 주장했다. 기술결정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의 방향을 규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나침반과 항해술의 발달이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에 따른 식민지화를 가능하게 했고 비행기의 기술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에 반대하는 사회구성주의 혹은 사회결정론은 기술결정론의 단순성을 비판하며 기술변화 과정에서 개입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기술자체가 중립적일 수 없으며 기술과 특권층의 권력관계를 분석하여 기술이 사회적으

것일까? 필자는 인간의 역사를 매체의 입장에서 새롭게 쓰는 매체고고학 Medienarchäologie을 통해 Kittler의 입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후기구조주의의 담론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기술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권력에 대한 담론을 분석해야 한다는 그의 매체고고학은 ‘강한 기술결정론’³⁸과도 일정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3.3. 주체 없는 유토피아?

Kittler는 인간이 프로그램과 접합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술문명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이 중심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기술이 인간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그의 정의에서 그가 기술결정론자라는 사실은 사실상 부인하기 어렵다. 유물론의 시각에서 매체의 역할을 분석하는 그의 담론 자체가 기술결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문명이 인류에게 해방을 줄 것처럼 Kittler는 낙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천적 주체의 종말을 선고하며 인문학의 휴머니즘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Kittler는 기술적인 합리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강성 기술결정론’과는 분명 차이를 두고 있다. 비릴리오와의 대화에서 밝힌 것처럼 Kittler는 기술로 인한 인간소외의 상황에 동감하며 기술적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³⁹

늦어도 2차 산업혁명 이후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정보를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지식의 담론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로 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이두갑전치형: 「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3권 제 2호 (2001), 157-179 쪽.

³⁸ 기술결정론자들의 논의는 강한 기술결정론에서 약한 기술결정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강성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사회를 필연적인 경로에 따라 변화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술 스스로 지니고 있는 합리성을 중시한다. 연성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사회변동의 제1요인이지만 기술이 도입, 사용되는 배경과 맥락 또한 중요하게 본다. 이두갑전치형, 165-166쪽. 기술과 권력의 관계를 추적해야 한다면서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을 드러내는 Kittler는 말하자면 연성 기술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겠다.

³⁹ Friedrich, Kittler, Informationsbombe, S. 8.

고고학은 기술매체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저장, 전송 계산방법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의 독점시대가 지나간 시점에서 가능한 한 급하게 그것이 무슨 기능을 했는지 산출되어야 한다.

그는 기술이면에 작동하는 권력의 구조를 부분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을 때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며 기술통제와 정보자유화에 대한 담론이 면밀히 분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ittler는 계산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현대의 기술매체가 권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Kittler에 따르면 기술매체는 단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권력의 담지자가 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매체 자체가 사물의 기준이자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기술공간에서 결정된 담론의 전략과, 특히 기술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폭로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서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자본의 부정적 개입을 인간은 비판해야 한다. 또한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정보가 유출되고 기술의 복제가 남용되는 상황도 인간에 의해서 폭로되어야 한다.⁴¹ 그의 매체 이론은 단순한 기술낙관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면에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담론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로는 인간의 과제라고 역설한다. Kittler는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계기로 보면서 그 전쟁 속에 개입된 권력의 문제를 매체의 발전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 그는 기술과 권력의 결탁을 고발하면서 권력에 복무하는 기술의 독주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²

따라서 Kittler의 이론에서 인간과 기술매체의 관계는 반드시 유토피아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디스토피아로 정의내릴 수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기술매체와 인간은 공동의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밖에 없는 통합된 존재이다. 디지털계산기의 한계가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할 거라고 그는 경고하며 기술매체의 끝없는 자기증식의 능력이 절제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 때, 컴퓨터의 자

⁴⁰ Zit. nach Frank Hartmann, Techniktheorien der Medien (2003), S. 60.

⁴¹ Friedrich Kittler, Informationsbombe, S. 12.

⁴² Vgl. Geoffrey Winthrop-Young, S. 130.

기증식 능력을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혹은 인간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컴퓨터가 자신의 한계를 갖도록 새로운 원칙이 보완되면 인류의 22세기, 23세기 미래는 지속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⁴³

어쨌든 기존의 어느 매체이론 보다 Kittler의 매체담론이 인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기술매체와 인간은 통합된 존재로 서로 공존해야 하지만 이것은 결코 컴퓨터를 지배하는 인간의 주체적 입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드웨어(물질)의 용량과 계산 속도를 소프트웨어(정신)가 초과할 수 없다는 말로 분명히 한다. 그렇다고 끈에 매달린 인형극의 인형처럼 인간의 운명이 무작정 기술에 종속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술담론을 분석하고 컴퓨터 산업의 부정성과 기술매체에 대한 자본의 독점을 폭로하는 행위 속에 인간은 각종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공존을 꾀할 수 있다. 주체는 사라졌지만 유토피아의 건설에 인간의 몫은 꽤 남아있는 셈이다.⁴⁴

IV. 결론: Kittler 매체유물론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Kittler는 매체유물론을 통해 매체학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에서도 극단의 위치를 점한다. 매체를 통해 인간의 감각능력이 확장된다는 맥루언, 네트워크의 대화의 장에서 구성되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플루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서 억압된 미학적 감수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볼츠에

43 "Denn wenn die Digitalrechner keine internen Grenzen hätten, dann würden sie wirklich die Weltgeschichte zu Ende bringen, in allen Punkten, die Sie gesagt haben: Die Zeit ist nicht mehr die Zeit des Menschen, der Raum ist nicht mehr der Raum des Menschen, sondern ist ein Gang in diesen kleinen Wunderdingen. Aber wenn diese Wunderdinge selber Schranken haben, dann kann man sich problemlos ein 22. oder 23. Jahrhundert vorstellen, in dem das Prinzip der Digitalmaschinen nicht gerade über Bord geworfen wird, aber ergänzt wird durch irgendein neues, zu erfindendes Prinzip." Friedrich Kittler, Informationsbombe, S. 10.

44 Kittler는 컴퓨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컴퓨터 회사와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보급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d.

이르기까지 근대의 논리적 사유를 거부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추구되었지만 키틀러는 인간을 아예 기술의 종속변수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주체개념 자체를 제거해버린다. 키틀러는 유물론과 후기구조주의의 이론을 접목하여 근대의 주체적 인간상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이 인문학에 던지는 의미를 필자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첫째, 독문학자 출신으로 키틀러는 매체이론을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문화학으로서의 매체학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그의 이론을 필자는 가령, ‘매체인문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전통적 문예학의 영역을 매체유물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키틀러의 저서들은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 기술관련 공학도에게도 다소 읽히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기술용어와 인식론적 담론의 결합으로 여러 학문의 영역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틀러는 유물론과 후기구조주의 철학적 담론으로 매체학에 접근하면서 인문학자들에게 ‘매체학적 인문학’을 정초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통의 주체의식을 넘어 기술매체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예고하고 있는 키틀러의 담론은 ‘사이보그’ 담론에 대한 인식론적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의 해방’ 혹은 ‘우리 자신의 확장’으로 매체를 기술하던 관점을 넘어서 매체와 결합한 인간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사이보그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⁵ 그에 따르면 이제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인간과 프로그램과 실행장치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적 존재가 출현한 것이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정보처리 기계로 접근하는 키틀러의 시각은 예를 들어 최근 다나 헤러웨이 같은 여성주의 학자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⁴⁶ 사이보

45 사이보그라는 용어를 키틀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인간과 프로그램의 결합은 필연적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사이보그는 인간중심의 기존 사회질서와 규범을 해체함으로써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거라고 보는 것이다.

46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정보처리 기계로 접근하는 키틀러의 시각은 여성학자 다나 헤러웨이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유전자들이 실제로 만드는 것은 행동하는 기계이다. (...) 유전자들은 컴퓨터 체스 게임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즉 유전자들은 두뇌, 작동체 기관, 감각통로들을 건설한다. 두뇌는 논리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처리 장치이다. ‘상상력’같은 모든 유심론적 용어들은 진보된 두뇌에 의해 가능해진 시뮬레이션 형태들을 말한다.” 다나 J. 헤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서울 1991, 112쪽.

그를 미래인류의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적 인간학은 이렇듯 21세기 새로운 인간학에 대한 인식론적 담론의 지평을 열고 있다.

셋째, 기술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는 키틀러는 디지털 기술이 담론형성에 기여하는 현실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이 담론형성에 결정적이라는 키틀러의 이론은 인터넷의 기술 및 보급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현안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더욱 분명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8년 미국소고기 수입관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인터넷 기술력의 성과 위에서 발생하였다. 시민 스스로 촛불문화제의 현장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촛불문화제의 현장이 안방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한 없이 전파되었고 수십만의 인파를 광화문으로 이끌었다. 매체의 기술력이 담론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하나의 역사적 예시라 할 수 있겠다.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이 인간의 역사를 매체의 역사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인문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열고 있지만 키틀러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도 만만치 않다. 기술이 인간을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의 단선적 논리 때문이다. 그의 매체론은 유물론이 함의한 ‘부분의 진실’로 인류와 역사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⁴⁷ 우리는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운용하는 사회와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놀라운 효과를 준 살충제는 제거하기 힘든 재앙의 물질이 되었고 편리한 운송수단이던 자동차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기술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는 기술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의제가 담겨 있는 담론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기술과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키틀러는 기술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는 기술과 권력의 결합에 반대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문명에 직면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이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양면적인 요소가 있음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 직시할 수 있다. 이 매체를 통해 촛불문화제와 같은 새로운 민주적 정치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장이 형성될 것인가 혹은 ‘점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담장’⁴⁸으

47 필자 역시 키틀러의 매체유물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매체를 통한 ‘인간의 사라짐’이 운명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고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축소하여 평가할 수만도 없는 딜레마 때문이다.

48 한겨레 신문, <인터넷에서 민주주의를 구출하라>, 2007년 3월 15일.

로 인터넷이 전락할 것인가는 여전히 Kittler가 말하고 있는 담론의 분석과 폭로를 통해 인간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Kittler, Friedrich: Aufschreibesysteme 1800 • 1900. München 1985.
- Kittler, Friedrich: Grammophon, Film, Typewriter. Berlin 1986.
- Kittler, Friedrich und Virilio, Pauli im Gespräche: Die Informationsbombe. Ausgestahlt im Deutsch-Französischen Kulturkanal ARTE November 1995.
<http://www.hydra.umn.edu/kittler/bomb.html>
- Kittler, Friedrich: Hardware, das unbekannte Wesen. In:
<http://www.hydra.umn.edu/kittler/hardware.html>
- Kittler, Friedrich: Interview, Stefan Heidenreich, Pit Schultz, 12-22-1993.
<http://www.hydra.umn.edu/kittler/interview.html>,

2차 문헌

- Hartmann, Frank: Techniktheorien der Medien. In: Stefan Weber (Hg.): Theorien der Medien, Konstanz 2003. S. 49-79.
- Hartmann, Frank: Materialitäten der Kommunikation: Zur medientheoretischen Position Friedrich Kittlers. In: Information Philosophie 2/1997, S. 40-44.
- Klook, Daniela/ Spahr, Angela: Die Technizität des Textes. Friedrich Kittler. In: Medientheorien. Eine Einführung, München 2000, S. 165-203.
- Vollhard, Et: Kittlers Leere. Kulturwissenschaft als Entertainment. In: Merkur 628 (2001), S. 711-716.
- Winkler, Hartmut: Flogging a dead horse? Zum Begriff der Ideologie in der Apparatusdebatte bei Bolz und Kittler. In: R. Riesinger (Hg.): Die kinematographische Apparatur,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r interdisziplinären Debatte, München 2003, S. 217-235.
- Winkler, Hartmut : Die Prekäre Rolle der Technik: Technikzentrierte versus >anthropologische

Mediengeschichtsschreibung. In: C. Pias (Hg.): Medien. Dreizehn Vorträge zur Medienkultur, Weimar 1999, S. 221-240.

Winthrop-Young, Geoffrey: Friedrich Kittler zur Einführung, Hamburg 2005.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서울 2008.

유봉근. 「문화학적 전환: 문화학으로서의 매체학」, 카프카연구, 제 12집 2004, 181-199쪽.

이두갑·전치형. 「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23권 제 2호 (2001), 157-179 쪽.

클라우스 비거링: 『매체윤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Zusammenfassung

Medientechnik und neue Anthropologie

- Am Beispiel von Kittlers Medientheorie

Do, Ki-Sook (Kwangwoon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darum aufzuzeigen, dass Friedrich Kittler den Menschen als Geschichte-Macher ablehnt und ihn aus Sicht der technischen Medien betrachtet.

Nach Ansicht Kittlers schließt der informationstheoretische Materialismus die Existenz einer von technischen Bedingungen abgetrennten sozialen Sinnkommunikation aus. Seine Theorie ist explizit anti-hermeneutisch und anthropologisch angelegt, da er allein nach den Wirkungen der medialen Technik fragt. Ausgehend von dem Theorieansatz, dass die Medien unser Leben bestimmen, betont Kittler ein mediales Apriori, nachdem das, was medial überhaupt gegeben ist, radikal von den technischen Umständen abhängt.

Darüber hinaus betrachtet Kittler die "Informationsmaschine" Mensch vom Standpunkt der Medien, da diese in der Lage sind, die menschliche Denk- und Wahrnehmungsweise nachhaltig zu bestimmen.

Anhand von drei Aspekten lässt Kittler den informationstheoretischen Materialismus erkennen: Erstens eröffnet Kittler ein neues Paradigma für die Geisteswissenschaft, die bisher für die technische Seite ihres Fachgebietes blind erschien. In Verbindung von Materialismus und Poststrukturalismus wird Kittlers Werk "Aufschreibesysteme" zu einer Bezeichnung, die als solche bereits auf das jenseits einer souveränen Subjektivität in Richtung einer anonymen Medientechnik hinweist. Der Mensch wird in summa aus einem physiologischen Abfluer reduziert, der durch Datensammlungen erfasst wird.

Zweitens kündigt Kittler ein neues Menschenbild an, in dem Personen zusammen mit Programmen und Prozessoren eine gemeinsame Kultur bilden. In einer solchen Gesellschaft werden Menschen und technische Programme künftig zu einer seltsamen Mixtur. Der Mensch ist nichts Besonderes mehr. Weiter erstreckt sich Kittlers Analyse auf den Diskurs von Syborg (Mensch+Maschine), welche in einer hoch technisierten Gesellschaft als neue Lebensweise positiv dargestellt wird.

Und drittens thematisiert Kittler im Verfahren der Diskursanalyse, dass Medientechnik und Kultur sehr eng verknüpft sind. Folglich liegt seine Theorie der Archologie des Wissens, die jedoch informationstechnisch erweitert ist, methodisch nahe.

Abschließend gilt es zu sagen, dass die Untersuchung von Kittlers Theorie, in einer hochtechnischen Internet-Gesellschaft, wie der unseren, dazu beiträgt, den humanwissenschaftlichen Diskurs auf die Relationen der Medientechnik zum Menschen auszudehnen.

주제어: Kittler, 매체미학, 매체의 물질성, 사이보그 담론,

Schlüsselbegriffe: Kittler, Medienästhetik, Materialität der Medien, Syborg-Diskurs

필자 이메일 주소: kisookdo@kw.ac.kr

투고일: 2008.09.24 / 심사일: 2008.10.27 / 심사완료일: 2008.11.30